

대림 제 4 주일

제 1 독서 : 미가 5, 1-4a

제 2 독서 : 히브 10, 5-10

복 음 : 루가 1, 39-45

# 순정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루가 1,45).



## 구세주 나셨네 !

아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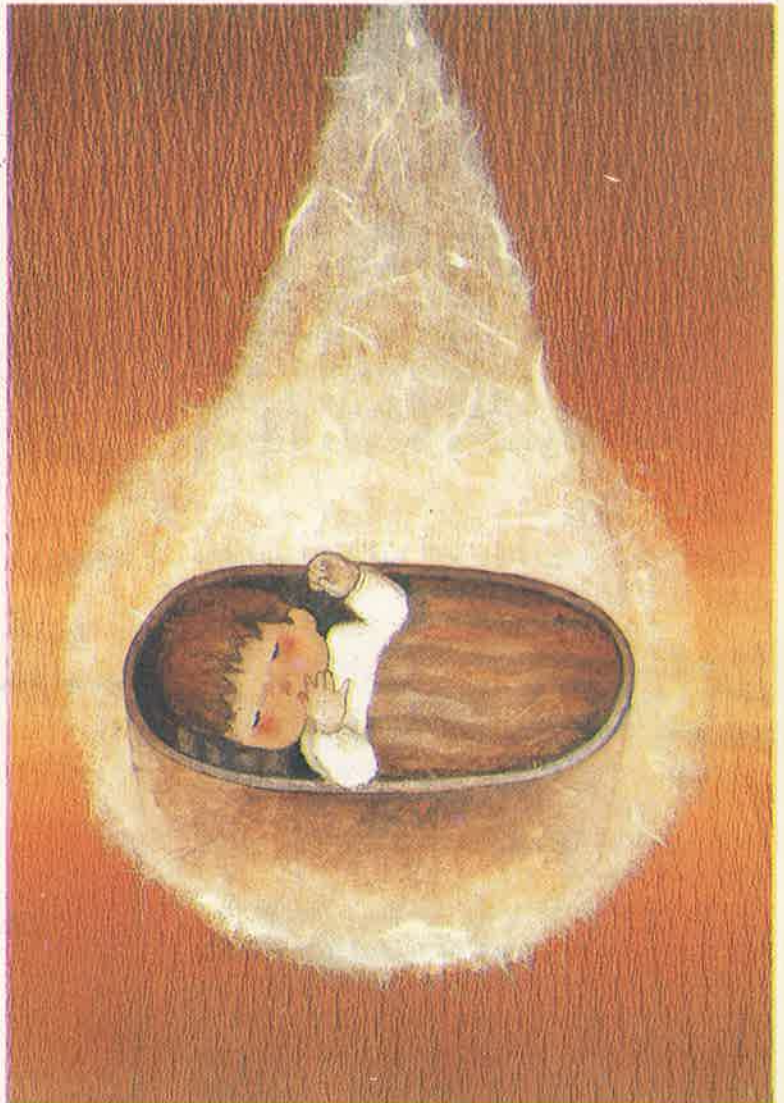
대지가  
동면에서  
아직 깨어나기 전에  
벌써 들리는 창조의 소리.

아! 그의 아들이  
아래로 내려오셨네.

우리 것처럼  
새생명을 잉태할 습기를  
아래로  
아래로 모으자.

들꽃을 피워내고...  
빛바랜 통일예의 염원에  
한줄기 생명수를  
흘려 보내기 위해.

• 글 : 박 규 심



여 명



# 동전 줍는 할아버지

한 상 갑(바오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가 2, 14).

덕진공원에 연잎이 한창이던 때, 이른 아침이면 현수교 난간에서 잠자리채로 무언가를 건져내는 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분은 아침 운동 겸해서 덕진공원을 거닐며, 널따란 연잎 위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건져낸다.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그 동전들은 지난밤에 산책을 하던 젊은 남녀들이 재미삼아 던진 것일게다. 어쩌면 그들은 서로 내기를 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여 연잎에 버려진 동전들, 잘못하다가는 연못 속에 빠져버릴 동전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혹시 용돈이 궁한 할아버지가 아르바이트 삼아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른 마음이 든다. 시궁창에 빠진 한 푼의 돈을 건지기 위해서 두 푼을 품삯으로 썼다는 어느 재상의 모습이 그분에게서 보이는 것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원짜리 동전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2원37전이고,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데는 22원23전이 든다고 한다. 그렇다면 연못에 깊숙히 묻혀버리고 말 동전을 건져내는 그분은 아무리 보아도 애국자임에 틀림없다.

### \* 무서운 징표들

세상이 무섭게 변모하고 있다. 특별하게도 금년에는 그 변혁에 가속도가 붙어서 현기증을 느끼게까지 한다. 무너지는 공산세계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환가 싶어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이리다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두려움기까지 하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 돌아가는 꼴은 한심하기만 하다. 정치의 민주화는 고사하고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하는 신종 날치기 굿이 신성해야 할 국회의사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았다. 거기다가 멍텅이돈 집어주고 대학가기, 정경유착의 비리를 보면서도는 현기증마저 이다.

무서운 연대성의 한 모습, 도둑놈은 시끄러운 편이 좋다고, 여기저기서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끔찍한 범죄들이 날로 기승을 부린다. 마치 종말의 징표를 보는게 아닌가 하여 무서움마저 든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휴거라는 새낱말로 예수를 팔아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한다. 이에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중심이 흔들려 가정 파탄의 일보 직전에서 헤매기도 한다고 한다.

### \* 나를 벗고 평화를 입자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사람보다도 권력이나 돈을 더 뽐자리에 쟁기는 풍토의 근원은 따지고 보면 지나친 이기주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피를 나는 형제까지도 얻고자 하는 것들의 걸림돌이 되면 과감하게 저버리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었다. 오늘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없지 않다. 내 모임과 내 모임으로 패를 가르고, 내 본당과 내 본당으로 담을 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사는 모습이 가끔 눈에 띄이니 문제다.

말없이 동전을 건지는 할아버지, 그분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분의 행위는 주인으로서의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 어느 구석이나 그러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우뚝서 있어야 한다. 빈수레마냥 소리만 요란한 오늘의 세대에 더욱 필요한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겹테기를 벗고 ‘우리’ 모두 하나되어 살아야 한다. 내 것만 챙기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의 몫도 살피며 살아야 한다. 그곳에 바로 평화가 있다. 나를 벗고 평화를 입자.

## 숲정이 산책



주님이 계시기에

# 아기 예수님의 옷을 빨며

박 옥 임(안나) / 서학동 성당



“오직 하나 주께 빌어 얻고자 하는 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시편 26, 4).

10년을 하루같이 새벽 5시30분이면 여지없이 홀트영아원에 도착하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빨래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일과이다. 67세의 잔주름과 굵어진 손마디, 서학동 성당에 다니는 박옥임(안나) 자매의 모습에서 충실함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24년 전 남편 김바오로의 죽음으로 3남4녀를 키우기 위해 그는 안해본 일없이 갖은 고생을 다하며 살아왔다. 가내공업센터에서, 한지 종이공장 등에서 일하다가 10년 전 시창의 소개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

60여명의 장애 아동이 수용된 이곳에서 묵묵히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동들의 옷, 기저귀 등을 기쁘게 빨기 시작한 것이 어언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온몸이 아프고 뼈마디가 쭈시는 고통이 있을 때도 편히 한번 쉬지도 않고 충직한 종의 자세로 일하는 그를 보고 원내의 사람들도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그에게 장한 어머니상이 주어졌으니 그 기쁨이야 어이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까.

그후 정년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남은 부채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촉탁 직원으로 계속해서 이곳에 일하고 있는 그의 가장 큰 힘은 신앙이다. 새벽에 출근하기 전과 퇴근 후에는 언제나 묵주를 손에 들고 그분을 향해 두 눈을 지긋이 감는다. 하느님께로 향한 믿음, 천국을 향한 열망만이 그의 전부이기에 그분 안에서 평화와 휴식을 길어낸다.

67세의 할머니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싱그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몸에 배인 희생과 봉사의 열매인 것 같다.

그는 빨래뿐 아니라 곳곳의 청소, 부업 봉사 등 그의 손길이 아니 닿는 곳이 없는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교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시중을 들면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며 눈시울을 적신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굶은 일을 도맡아하는 분이예요”라고 한 자매가 귀뜸. 오시는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마련하고 있는 그의 숨은 손길을 아기 예수님께서 축복 해주시리라 믿는다.

신자들의 소리

# 천사의 미소

오마리아 / 선덕 보육원 보육사

아침이다. 이른 아침 체조종을 치러 나와 보니 안개만이 세상을 온통 하얗게 덮고 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세상을, 또 나의 머리와 옷과 그리고 웬지 모르게 복적거리는 나의 가슴까지도... 주님의 사랑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리듯 안개 또한 자신을 세상에 주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나도 안개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텐데, 주님은 참 이상하시다. 왜 이리 도망만 다니는 나를 붙잡으려 하시는지.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이곳 보육원에 들어선 지 벌써 한 학기가 지났다. 남루한 옷차림, 어두운 얼굴 표정 등 부정적인 선입판과는 달리 비교적 정돈이 잘된 주위 환경과 밝고 환한 모습들을 보니 일단은 안심. 처음 맡은 반을 들어가니 여기저기서 인사를 한다. 하지만 이들의 경계심어린 눈빛을 보며 이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은 중·고 여학생들이며 함께 생활하면서 사춘기 소녀들의 꿈과 가슴앓이 등을 지켜보게 되었고 이들도 제 때래 아이들과 다름이 없는

건강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지켜보는 일반 사람들의 편견과 잘못된 선입판은 우리들을 때때로 절망하게 하였으며 이럴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닮고 주님을 의심하곤 했다. 하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천진하고 순결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나의 갈등을 위로해주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의 온갖 편견과 질시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이들은 내게 기다리는 인내를 알려주고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게 한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다. 해마다 연말 연시나 명절 등이 다가오면 우리들은 으레 소외된 이웃을 찾게 된다. 나의 작은 바람이라면 이런 관심들이 어느 한 순간의 선심이나 동정이기보다는 좀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애정을 가지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켜봐주는 것이다.

아이들의 조용한 웃음을 보니 어디에선가 천사들의 함창이 들리는 듯하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평강,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1991년도 성탄절 메시지

이디시서 10남주



# 오시는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굽은 길을 바르게 만들어라. 골짜기는 모두 매우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추어라. 굽은 데는 바르게 하고 험한 데는 평탄한 길이 되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가 3,4-5).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을 등지고 죄악과 절망의 죽음 속에 갇혀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서(요한 1,4)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돌처럼 굳어져버린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을 녹여내는 ‘불길’로서(루가 12,49), 한밤중보다도 더 짙은 인간 사회의 어두움을 헤치는 ‘빛’으로서(요한 1,4) 우리 각자와 세상에 오십니다. 우리를 움아매고 있던 원수의 쇠사슬을 끊고 다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승리자’로서(요한 16,33) 그분은 오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좁고 어두운 세상에까지 보내실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범죄 이래 점점 더 심하게 얼어붙어만 가던 세상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큰 환희이며 가슴 뿌듯한 기쁨입니까? 날 때부터 앓을 못 보던 사람이 세상 만물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주어진 시력, 감옥에 갇혔던 사람에게 내려진 석방, 반신불수로 평생을 늙거나 앉아서만 지낸 사람이 뛰어들 수 있도록 회복된 건강, 죽었던 사람에게 다시 부여된 생명.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지만, 이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보물,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선물을 안고, 아니 그 선물로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도 온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의 사회 구석구석에까지는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니다. 아니, 그분은 거기 오실 수가 없어 아직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복시 3,20 참조). 우리가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 성탄이 참으로 기쁜 일이 되고,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세력들을 거기서 끌어내야만 합니다. 그 준비가 없이는 그분의 오심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천년 동안 그분의 오심을 준비했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로 끝났습니다.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시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요한 1,11). 빛이 세상에 오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요한 3,19), 성탄을 소개하는 복음과 그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구유 장식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세계에서는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마음을 만날 수 없어 그분은 결국 짐승의 세상인 좁고 어두운 외양간에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죽음 대신 생명을, 어둠 대신 빛을, 속박 대신 자유를, 절망 대신 희망을, 우울함과 슬픔 대신에 기쁨을, 병고 대신에 건강을 주러 오신 그분을 거부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안에 무엇이 그분을 가로막는가? 무엇이 거기 있기에 죽어가면서도 의사를 피해 달아나는가? 그리고 어쩌해서 이런 일이 우리 하나하나의 삶에서, 각 세대마다에서 조금도 변함없이 반복되는가? 왜 진리는 그처럼 쉽게 감추어지고 허위와 날조가 활개를 치는가? 왜 약하고 버려진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그대로 약하고 버려진 채인가? 어쩌서 교회의 각급 모임에서마저 북

신속배달  
**한성가스**  
대표 최영혜 (헬레나)  
이리시 남중동 국토건설국 앞  
☎ 855-1323, 855-1324

**우리전투**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발식 설화숙 (조각리아)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앞)  
☎ 85-8848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싸롱**  
전광원 (마르코)  
김소피아  
전주시 원신구 고시동 1가 130-1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92학년도 유치부 원아 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호남(제일예식장 뒤) ☎ 252-7313  
세호남(전주역 앞) ☎ 253-1411  
효자(상천동쌍용APT앞) ☎ 221-8331  
원장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안젤라)

# 주님을 맞이하며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아닌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동쪽에서 오시는 분을 서쪽에서 기다린다가, 전혀 생각지 않을 때 오실 분을 잘못 계산하여 잠이나 자고 있는 형편이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몰고 올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바로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세례자 요한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안내자입니다. 루카가 전하는 세례자 요한(루카 3, 1-18)의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먼저, 루카는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며 주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십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솟은 곳은 낮추며, 굽은 곳은 곧게, 험한 곳은 고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올바른 길을 벗어나며 진리를 거부하고 참생명을 외면하려드는 경향이 거기에 얼마나 강하게 살아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구원으로 통하는 좁은 길 대신 우선 쉽고 넓은 길로 들어서고, 큰 희생을 요구하는 진리 대신 쉽게 불의와 타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며, 참생명이 오히려 죽음으로만 생각되어 피해 달아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처지는 참된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이 오시는 데에 더없이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이런 형편을 송두리째 고쳐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거기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와의 인연을 철저히 끊을 때에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인연을 끊지 못한 인간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족속", "악마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을 통해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까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의 입에서도 같은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뒷면 계속)

음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기가 그렇게나 어렵고, 그것이 너무나 흔히 인간적 계산과 욕망의 소리에 숨겨져 죽고 마는가? 여러 가지 설명을 찾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아무래도 '악의 신비'(2데살 2,6)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비스런 방법으로 우리 각자와 각급 공동체에 그 세력을 뻗쳐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오심을 거부하는 이 악의 신비에 대해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울가미에 걸려들어 스스로는 가장 충실한 종교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실상은 대단히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동)시메오

그러므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다가

개·업 상담  
**롯데오피스빌2층 숙녀복 전문집 202호 해나네집**  
 대표 김 베드로  
 이 경 희(비비안나)  
 교사동 코리아극장 앞  
 가계 83-8649, 자택 291-9285

대장·항문병(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평상 활동 가능 -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담전화 75-0550

주단·침구·혼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요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요  
 ☎ 84-7294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속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죄와의 인연을 끊는 일은 물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되고 진지한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고, 남과 더불어 사는 일, 즉 ‘사회적 관심’으로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루 종일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라든지,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에서의 긴 기도도 좋고 종교적 감흥에 젖는 일도 어떤 때 필요하겠으나, ‘회개했다는 증거’(루가 3, 8)를 행실로 보이지 않는 한, 그것들마저 자기 기만의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요한은 꿰뚫어본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리들과 군인들도 같은 질

문을 하며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요한은 그들 각자가 신분에 따라 자주 떨어질 수 있는 죄의 기회를 고려해서 악에 떨어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은 혁명적이지만 영웅적인 노력이 필요할 만큼 힘든 일은 아닙니다. 비리와 부정으로 낙인이 찍혀 있던 세리와 군인도 구태여 그 직장을 떠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부정에 가담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라. 이것이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요한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회개하여 하느님을 그 삶에 진정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아내로서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도 제때에 식사마저 차려주지 않은 채 기도에만 몰두해 있다든지, 남편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소홀히 한 채 성당일만을 열심히 하는 것이 종교인다운 태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가 많아진 곳에 은총은 넘쳐 흐름”(로마 5, 20)을 체험하고, 주님의 오심이 가난하고 묶여 있으며 눈이 먼 처지에 있는 우리 각자와 사회를 위해서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가 4, 18-19).

**오십이 (959) 김병오**

일본정부는한국여성의 정신대진상을밝히고 사죄하고보상하라

아무반응이 없구나... 우리나라에는 대일외교에 능한 인물이 없어서...

일본사람에게 고개 잘숙이는 인물이 있오? 그게 누구요?

종퍼리씨요! 우리나라 성에 종씨가 있겠는가?

**마리아수도원 성소모임**

\* 일시 : 1991년 12월 29일 오후 2시 \* 장소 : 마리아수도원 ☎ (02) 334-8547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403-2 \* 대상 : 일반인 및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관인 다예 미술 학원**

원아모집(4세-7세 선착순) 국교부 미술 수강생 모집 원장과 아동미술 전공교사 지도

박 경 화(마리아) 호자동 ☎ 223-8355

**현대 미용학원**

미용·피부, 본과, 연구과

☎ 86-221, 254-3003

김 데레사(금순)

진북동 제일예식장 맞은 편

**황실 커튼·홀패션 커튼 전문**

각종 침구·훈수·수예·브라인드

마 옥 연(가타리나) 동산동 우신아파트 정문 앞 ☎ 212-1079



주님의 오심,  
성탄이 참으로  
기쁜 일이 되고,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세력들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동서로삼익피아노**

“현이같이 맑고 부지런한 소리를  
독일형 삼익피아노”



피아노, 교회올젠, 판·현악기  
일반 악기, 각종 수입악기 판매

김태우(알폰소) 황진숙(안젤라)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 88-7717~8

# 교 구 소 식

❖ 예수 성탄 자정미사  
 • 때 : 12월24일(화) 밤12시(자정)  
 • 곳 : 중앙 성당  
 • 집전 : 이병호 주교

❖ 교구 법원  
 • 때 : 12월23일(월) 오전 10시  
 • 곳 : 교구청

❖ 참사회  
 • 때 : 12월27일(금) 오후2시  
 • 곳 : 교구청

❖ 삼례 제2성당 축성미사  
 • 때 : 12월25일(수) 오전10시30분  
 • 곳 : 삼례 제2성당

❖ 성서교실 수료식  
 • 때 : 12월28일(토) 오후3시  
 • 곳 : 중앙 성당

❖ 혼인감좌  
 • 때 : 12월29일 오전9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 회비 : 5,000원  
 • 문의 : 85-5098

❖ 제8차 전주 선택  
 • 때 : 1월24-26일  
 • 곳 : 나바위 대건 교육관  
 • 대상 : 젊은 미혼 남녀  
 • 회비 : 30,000원  
 • 접수 : 교육국(선착순)

❖ 선택의 날  
 • 때 : 1월25일(수) 오후3시  
 • 곳 : 가톨릭센터

❖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때 : 12월27일(금) 밤11시  
 • 곳 : 전동 성당

❖ 가톨릭교리신학원 신학통신교육부 신입생 모집  
 • 기간 : 2년  
 • 내용 : 성서, 신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등  
 • 구비서류 : 입학원서, 사진3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원서교부 : 1월6일-25일  
 • 원서접수 : 1월14일-28일  
 • 문의 : (02) 745-8339

❖ 시청각 통신성서교육 안내

1. 신구약성서 입문과정(2년)
  - 구비서류 : 입학원서, 증명사진 2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원서교부 및 접수 : 매년 1월1일-2월10일까지
  - 원서대 : 3,000원
  - 교부처 : 전국 성바오로 서원, 시청각 통신성서교육부 (02)987-4004
2. 신구약성서 중급과정(4년)
  -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수료자
3. 바울로 영성사상과정(1년)
  -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수료자
4. 문의 : 성바오로 서원 (0652)252-3398

❖ 축! 영명

- 26일(성스테파노) 김치삼, 김환철, 나춘성, 박대덕 신부님
- 27일(성요한사도) 서석구, 김병환, 김기수, 전종복, 이덕근, 김선대, 김희태 신부님 축하합니다.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창조 질서 보전 - 한해의 반성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올 한해 동안 벌여온 캠페인 중에 자신이 과연 얼마나 실천에 옮겨 왔는지 반성해보고 지켜지지 않은 것들은 바로 지금부터라도 실행에 옮겨 참으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유지, 보전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죽어가는 자연을 생각하며 내가 쓰는 물건이, 내가 행하는 일들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보고 무심코 한 실수들이 나와 내 이웃에게 또한 하느님 창조 질서 보전에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를 생각합시다.  
 당신이 실천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바로 내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일입니다.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냅니다\*  
 원목가구 · 생활용품

**미지블**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선이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 (도)

**RÉCOLTE**  
**레콜트 (주)동방산업**  
 (숙녀 의류)

중앙동4가7-2(도 민원봉사실 앞)  
 ☎ 82-3904  
 박 영 목(미 카 엘)  
 정 진 화(미카엘라)

###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 · 숙녀화 | 총판매장(공정직영)  
 아동화 · 특수화

김 문 식(베드로)

☎ 82-3118

풍남문, 혼진, 송악로 사거리

### 한아름부엌 완산대리점

사무용품, 장승가구

장승백이 에그린아파트 중간

☎ 88-7603, 88-9984

김영춘 · 강희선(벨라뎃타)

### 네모화실

유치원 · 초 · 중등부  
 미술 지도(실기, 이론)

김 아 원(하와)

효자 성당 앞 윤 한의원 2층

☎ 222-3668

### 컴퓨터 교육 전문 학원 세라 컴퓨터 학원

원장 김 선 애(요셉피나)

상담 전화 ☎ 77-1126

전주역 로타리 ↔ 북일국교 사이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무회장 노 승 남

1. 축! 세례: 62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예수성탄 대축일 미사안내: ① 전야미사-24일 저녁7시, ② 밤미사-24일 밤11시30분, ③ 낮미사-25일 전8시30분, 전10시
3. 구역별 성가경연대회: 24일 후9시~
4. 초·중·고 성탄 예술제: 25일 후7시
5. L.M.연차 축 친목회: 26일 후7시30분(각Pr별로 준비하세요)
6. 빈첸시오 총회: 26일 전9시30분
7. 유아세례: 28일 후2시30분  
금주청소: 중노2가10,11번 자주청소: 중노2가12,13번  
☐ 이차헌금: 416,940원  
☐ 지난주 봉헌금: 794,260원 ☐ 교무금: 2,900,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무회장 신 일 균

1. "축"영세: 오늘 공식미사 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 성탄미사 시간 및 전야행사: 유인물 참조.
3. 신부님 영명축일(27일): 축하사와 축하연은 오늘 공식미사 후에 신자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4. 유아세례: 28일(토)오후6:30분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5. 울드레아 감사: 전광원(마르코) 수고하시겠습니다.
6. 빈첸시오회(28일): 오전10시  
"축"결혼: 29일 12시 신랑-김베드로 신부-윤세레나.  
13시 신랑-조요셉 신부-오가타리나.  
성탄자정미사: 오교성,황만균 독서-신일균씨 부부  
봉헌-김성원씨 가족  
성탄공식미사: 정승훈 독서-오장수씨 부부 봉헌-송철수씨 가족  
차주전례해설: 최옥남 독서-임종길씨 부부 봉헌-이상인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32,570원 ☐ 교무금: 2,346,65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무회장 김 종 석

- ※ 사무회장 선거: 오늘 학생, 공식미사 중
1. 성탄행사안내: 24일-저녁7시미사, 8시-초, 중, 고등부행사, 밤11시-구유예절 및 자정미사, 25일-오전10:30분 공식미사
  2. 울드레아: 26일 저녁미사 후 3. 꾸리아연축친목회: 28일(토) 저녁미사 후
  4. 심서읽기: 베드로1서전제 5. 금주청소: 신비로운장미Pr
  6. 성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성가정회: 29일(다음주) 저녁7시  
☐ 지난주 봉헌금: 278,850원 ☐ 교무금: 431,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무회장 김 명 웅

- ※ 대림제4주일! (예수님을 맞이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불우이웃을 도울시다.)
1. 축! 영세자: 12월22일(오늘) 공식미사중, (※ 오늘세례주님의자녀가된형제자매님들이주님과함께하시길바랍니다)
  2. 예수성탄미사시간: 성탄전야-12월24일(화)밤11시, 성탄대축일, 12월25일(수)오전10시30분,
  3. 91년도교무금미납자는완납바라며, 92년도교무금미납자는신입바랍니다.(교무금하느님께바치는신자의의무이니정성껏봉헌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교적정리: 우리본당구역로이사오신분은교적전입을하시고타본당으로이사하신분은전출신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637,950원 ☐ 교무금: 1,623,5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무회장 오 직 환

- ※ 새 영세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1. 성탄예술제: 초등부-23일 오후5시 중·고등부-24일 오후7시-많은 참석 바람
  2. 성탄경품권추첨: 24일 오후9시
  3. 성탄전야미사: 24일 오후10시30분(25일미사: 9시, 10시30분)
  4. 교리 학력고사 배포: 29일 다음주일까지 제출(시상식은 31일 송년잔치)
  5. 신·구 사목회 임원 연수: 오늘 공식미사 후
  6. 청소년사: 서완산동1가, 안행동  
☐ 지난주 봉헌금: 718,830원 ☐ 교무금: 1,042,000원

**\* 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명 구  
유치원 81-8347 FAX 82-6232 사무회장 안 득 수

- ※ 성전도수헌금바람. ※ 교무금완납바람.
1. 금주모임: ①성마리아Co(오후2시) ②청년연합회대청소(오후3시30분) 2. 예수성탄대축일미사: 24일-전야 10시30분, 25일-오전9시, 10시30분, 오후3시, 7시. 3. 돈보스코회 임원개편: 회장-주환(다두) 부회장-진일탁(요한), 김원준(야고버), 총무-김동욱(마태오), 재무-김문식(베드로) 4. 문규현신부님께 위문편지를! : 주소(우편314-140) 충남 공주시 공흥동 360. 공주교도소(314-140)문규현 신부님. 5. 가족성가경연대회: 접수-사무실 12월29일까지(92년 1월중 실시예정) 6. 산청 나한우 형제회 방문: 재속프란치스코형제회-27일9시출발, 참가비 15,  
☐ 지난주 봉헌금: 1,672,050원 ☐ 교무금: 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수녀원 87-0229 사무회장이 완 규

- ※ 경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오늘 탄생하셨도다 축
1. 성탄절 미사 및 행사안내: 24일 밤미사 10시(가족과 함께) 25일 미사-전9시(초중고) 전10시30분(공식) 예술제-후7시 1부-초중고, 청년, 가족대 경연대회 2부-행운술 추첨
  2. 축! 세례: 본당50명 평화공소: 29명 새 생활을 축하 합니다.
  3. 레지오 마리아에 연차 축친목회: 26일 후7시 협조단원 함께.
  4. 성탄준비 대청소: 22일 공식미사후 제단재및 전신자 참여.
  5. 보충 판공성사: 22일 전10시-12시 후7시 누락자 없도바.
  6. 교도소 재소자 성탄미사: 27일 후1시 후원회원 협조바람.
  7. 구역, 반 감사예물: 1,742,000원(14,000-80,000) 신축헌금으로 봉헌
  8. 26일 27일 미사는 아침6시 제단제 회의는 23-24일에  
☐ 지난주 봉헌금: 785,000원 ☐ 교무금: 1,434,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무회장 박 영 근

1. 청년회: 오늘 미사 후
2. 성탄전야 미사: 24일(화) 오후10시, (초중고 예술제: 오후8시)
3. 성탄절 미사: 25일(수) 오전10시30분  
(미사후-본당 신부님 영명 축하사)
4. 총회: 다음주 미사후(대상-사무회임원, 구역장, 각단체장)
5. 성탄전야미사: 전례-한병갑 독서·봉헌-장정진, 박영근
6. 성탄절미사: 전례-최정순 독서·봉헌-이현희, 한병갑
7. 금주전례: 한병갑 독서·봉헌: 김해화, 신정균  
차주전례: 정 결 독서·봉헌: 이유자, 이원길  
☐ 지난주 봉헌금: ☐ 교무금: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무회장 황 수 석

1. 경축 성탄 대축일: 하늘높은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확한이에게 평화, 미사: ①자정미사-24(화)10시 ②25일(수)09:30 ③11:00 ④후7시
2. 축! 영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오늘오후3시미사중에)  
①어린이성탄대축일미사-24일(화)후3시  
②구역성가경연대회-오늘오후8시부터  
③성탄대축일예술제(초중고)-성원해주신분께 감사.
3. 레지오단원 연차친목회: 29(일)오후2시-5시
4. 판공성사: 매 미사 20분전 ☐ 2차헌금: 456,970원
5. 91년도 교무금 속히 완납 및 92년도 교무금 성탄전까지 신입요망
6. 구유조배를일심히합시다(구유헌금은불우이웃을돕기위한)  
☐ 지난주 봉헌금: 1,117,040원 ☐ 교무금: 4,239,000원

**\* 효자대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무회장 김 흥 두

- ※ 축! 영세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1. 반석회: 공식미사 후 2. 성탄자정미사: 24(화)저녁11시, 25(수)주일과 같음 3. 미납된 교무금은 속히 봉헌하십시오. 4. 중고등부 학생간부 선출: 회장-김홍열(로마노) 부회장-김성주, 이현수 총무-김성수  
차주모임: 요셉회 신축헌금봉헌액: 2,780,000원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황인용 ②박규자 기도①엄정준 ②임효정  
차주전례: 해설-강진성 독서①송재진 ②한경례 기도①정경수 ②최순영  
☐ 지난주 봉헌금: 1,133,380원 ☐ 교무금: 3,385,000원  
☐ 자선헌금: 702,660원